집중호우로 파손 옛 산동교, 올 여름까지 복구 어렵다

광주 북구, 겨울철 수중조사 불가
2월 말~3월 초 안전진단 재개
북구 "용역사 설계 등은 진행"

광주시 북구가 지난해 7월 17일 집중호우로 파손됐던 옛 산동교〈사진〉 안전진단을 여태껏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시작한 안전진단 용역도 계절상 이유로 봄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하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 유일 6·25 전쟁 전적지인 옛 산동교 복구가 자칫 올 여름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29일부터 '구 산동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 달 동안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강물 밑에 가려져 있는 파손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수중조사를 해야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하천 수가 탁해지면서 조사를 벌일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북구 설명이다. 조사 시점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옛 산동교는 1934년 폭 6m, 길이 228m로 건설됐으며 목포와 신의주를 잇는 국도 1호선의 일부로 건설된 교각이다.

이곳은 1950년 7월 23일 군경합동부대가 북한군의 광주 점령을 막기 위해 첫 전투를 벌였던 광주지역 유일한 6·25 전적지로 2011년 현충시설(국가보훈부 지정)로 지정돼 북구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옛 산동교는 지난해 광주에 하루 최대 42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교각 1기가 파손되고, 토양이 휩쓸려 교각 기초부 7곳이 세굴(골격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되는 등 총 8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는 붕괴 위험을 이유로 통행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반년 째 옛 산동교를 이용하지 못해 150m 떨어진 산동교(신설)로 강을 건너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는 국가보훈부 등과 논의를 거쳐 옛 산동교를 현충 시설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사업비 33억3800만원(국비 50%·시비 20%·구비 30%)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교각 1기 등 훼손된 8곳을 보수하기로 했다.

북구는 지난해 10월 안전 정밀진단·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산동교 재해복구사업에 착수키로 했지만 과업 지시서를 만들고 입찰 공고를 띄워 공모를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 용역 개시 시점이 2개월 미뤄진 것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뒤늦게 안전진단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계절상 문제로 물 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진단을 한 달 여 미루게 됐다.

이 때문에 복구 공사를 발주하는 시점도 기존 5월 말에서 6월 말~7월께로 미뤄졌다. 결국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7월이 오기 전까지 옛 산동교를 보수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1930년대 지어진 교량이다 보니 수심에 박혀 다리를 받쳐주는 교각 기초부도 얼마나 세굴됐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보호 작업 등이 이뤄져야하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워 잠수부 인력이 들어갔다간 저체온증 등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중조사 작업만 중지됐을 뿐 사실상 용역사들이 설계나 진단 부분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기후 변화에…겨울별미 꼼치 확 줄었다

여수 등 어획량 급감…전남도, 치어 1억8000만 마리 방류

겨울철 여수 등 남해안에서 별미로 꼽히는 꼼치(물메기) 어획량이 급감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이 어장 형성을 방해한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 겨울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자 어종이라 어민들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남도가 매년 수천만 마리를 방류하며 자원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28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남해안의 대표적 겨울철 효자 품종인 꼼치(물메기)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자원 회복을 위해 대규모 방류 사업에 나서고 있다.

꼼치는 2010년도만 해도 연간 1077 t 의 어획량을 올리며 전남 남해안 어민들의 겨울철 주 소득원으로 꼽혔다.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 맑은 국물로 탕을 끓이면 속풀이로 좋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어획량이 급감했다.

여수 등 남해안의 경우 2015년 겨울철 평균 수온이 7.7도였는데, 지난 2024년에는 8.4도로 10년 간 0.7도 올랐다. 통상 바닷물 온도가 1도 오를 때 어패류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물 밖에서 10도 안팎의 변화와 맞먹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난 2024년 전남지역의 꼼치 어획량은 107 t 에 그쳤다. 지난해도 겨울철(12월~2월) 어획량이 80 t 수준에 머물렀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2018년부터 8년 간 꼼치 방류를 추진해왔다. 어민들 요구로 시작한 사업인데, 그동안 바다로 보낸 5㎜ 크기의 어린 꼼치는 1억 8394만 마리에 달한다.

올해도 2월까지 30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달에만 지난 27일 여수 돌산읍 두문포 선착장에서 835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1500만 마리를 방류했다. 어민들이 산란기 조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수정란을 구해오면 과학원이 육·해상 부화 시스템을 통해 길러낸 뒤 방류하는 식이라 어민들 반응도 좋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연구사는 "꾸준한 꼼치 방류 사업으로 여수 바다에서 꼼치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현장 앞에서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을 기리는 49재 추모식이 엄수됐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49재 추모식

희생자 유가족·장성 에어컨 설치 노동자 유족 등 참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을 기리는 49재 추모식이 엄수됐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붕괴참사 49일 노동자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식에는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희생자 3명의 유족을 비롯해 장성 에어컨 설치 노동자 유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사고 희생자 서청운씨의 동생 서정운(60)씨는 "지난 추석 이후 형을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며 "광주시에 TF(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지만 관련해 들은 바가 없고 사고 진상조사 관련된 것도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도 추모사를 통해 "과거에는 시공자가 안전하게 시공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 현장의 모든 주체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2시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에서는 짓던 건물이 무너져 작업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곳에서는 광주시 발주로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사업비 516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영하권 추위·건조·강풍

당분간 광주·전남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밤 9시를 기해 곡성, 구례, 고흥, 보성, 광양, 순천, 완도, 여수 등 전남 8곳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다.

여수는 지난 20일부터 10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으로 전남동부와 전남서부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의 강한 추위가 이어진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6~영하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를 보이고,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영하2도, 낮 최고기온은 0~6도에 머물겠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8~영하3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가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전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4년제 대학 51곳 등록금 인상

2.51~3.18%…37곳 동결

올해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2.5~3%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사립대 151개교·국공립대 39개교) 가운데 전날까지 51개교(26.8%)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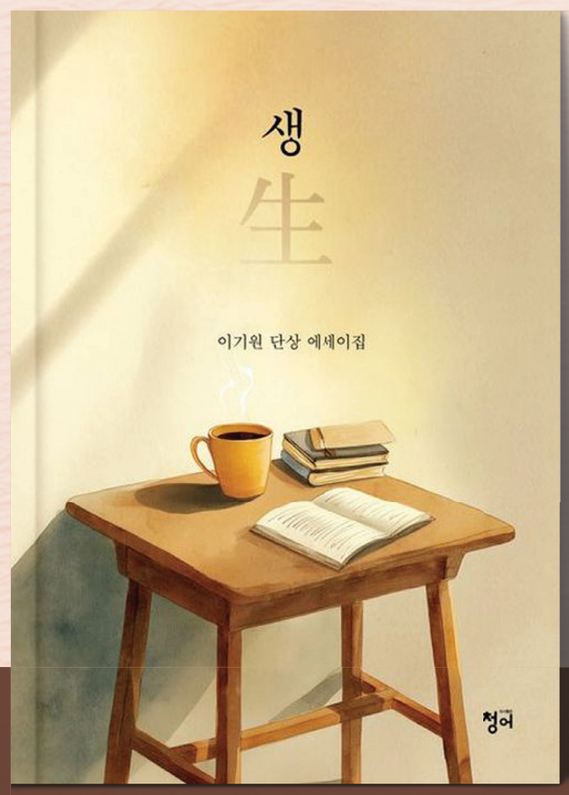
등록금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23개교(45.1%)로 가장 많았고, 3.01~3.18% 구간이 12개교,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이 5개교로 각각 파악됐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37개교(사립대 10개교·국공립대 27개교)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대는 2026학년도 국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6.4% 증액된 점을 감안해 학생 부담을 늘리지 않고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사총협이 전했다.

/연합뉴스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이기원 단상 에세이집

312쪽 | 값 16,000원

生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톳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뭇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태어날 생(生)이냐,
살아갈 생(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이기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밥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적), 목포(연산서적)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익산(동아서점)